

예수님을 배척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이미 율법에 대한 당시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육신적인 안목에서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본 뜻은 행위 자체의 금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마음속의 미움에 대한 언급이었음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되는 행위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의 원인이 되는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율법에 대한 그릇된 해석으로 인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잘못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영적 교만을 말합니다. 영적 교만에 빠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더러운 죄인으로 여기고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갈 때 옷자락을 몸에 바싹 당기고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의 옷자락이 죄인들의 몸에 스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강한 어조로 꾸짖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임의로 해석하면서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규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율법은 안식일에 어떠한 짐도 져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들은 ‘짐을 진다’는 내용의 구성요건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에 따르면 한쪽 다리를 잃고 목발을 사용하는 사람은 안식일에 그 목발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목발로 걷는 것이 짐을 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치를 한 사람도 안식일에는 빼야 했습니다. 의치도 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의 해석은 율법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적인 태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즉 그들의 전통적인 해석에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율법사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범하지 않나 하며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맨 처음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개종하여 교회의 일원이 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는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로 와서 교회 안에 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에 관한 교회의 결정을 위해서 몇몇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율법은 이방인으로서 믿는 자들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며 이방인들의 구원에 필수조건도 아니다’라는 결정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은 율법과 관계없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단지 이방인으로서 믿는 자들은 우상을 버리고 목매어 죽인 것들을 삼가라는 교훈만 받았습니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보낸 편지는 이렇게 행하면 잘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는 안식일에 관한 율법의 모든 부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과받지 않았습니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안식일은 휴식을 위한 날이었습니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쉬도록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분명코 우리의 몸은 휴식하는 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데는 날입니다.

12장 서두에는 바로 이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12:1-4)

그 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는 진설병을 부하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매우 고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도 진설병을 먹고 부하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적 필요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더 고상한 법이 있습니다.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관련된 더 차원 높은 법이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12:5)

사실 저는 일주일 중 그 어느 날보다 주일에 더 열심히 일합니다. 5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했으며 그것은 죄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12:6)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일하고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무죄로 인정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진실로 성전보다 더 크신 이인 예수님과 더불어 안식일에 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12:7)

이 구절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시면서 두번째로 인용한 구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더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돌아왔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진에서 양과 소의 소리를 듣고 “이 소리는 어쩍이니까”하며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라고 변명했습니다. 이 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경책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희생제물로 제사만 드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의 마당만 더럽히는 자들이라 하시며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제물에 진절머리가 나고 그 냄새도 역겹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들을 외면하면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열납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습관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러한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들을 죄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12:8)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안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모든 믿는 자에게 안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곳에는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근거를 찾기 위하여 예수께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들의 해석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상을 당하여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그를 치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야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었으며, 안식일에는 죽지 않도록 응급처치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12:10)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비록 안식일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도와주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으니이까?”라는 그들의 질문에 ‘합법적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경우에 예수님을 고소할 작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12:11)

예수님은 이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곤경에 빠진 짐승을 돕는 것보다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인냐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데 누가 비합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거늘”(12:13-14)

‘이것은 너무 지나치군. 그는 우리의 전통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사기마저 떨어뜨리고 있어. 그는 우리의 모든 의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는거야.’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정면대결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12:17-21)

이 예언은 복음이 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이며 상한 갈대와 꺾져가는 심지로 묘사된 이스라엘을 주께서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구원을 주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훼방하는 바리새인들

“그 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병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병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들이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12:22-23)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이라” 함은 다윗의 씨에서 나오리라고 예언된 메시아를 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12:24-26)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12:27-29)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자, 즉 사단을 결박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사단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것은 사단 스스로의 분쟁이 되므로 어찌 타당한 주장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12:30)

30절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양쪽의 입장을 다 포용하는 중간지대의 여지가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글쎄요, 저는 확고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배척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고한 결정을 못 내린 것은 이미 하나의 결정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중간적인 태도 표명은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위한 삶이 아니면 그분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사단의 힘으로 사단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비난함으로써 결코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12:31-32)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합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당신의 삶 속에서 거듭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청종치 않고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직 한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분의 독생자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부인한다면, 즉 성령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관하여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가지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죄 사함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 죄 사함을 받을 다른 대안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 진리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믿기를 거부하는 것,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을 훼방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들 앞에서 그 증거들을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2:38-40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뉘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12:33-38)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케 하신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방금 목격한 이 표적들을 부인하고 또 다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러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12:39-41)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이 짤막한 답변에서 예수님은 소위 고등비평가라고 불리는 자들에 의해 가끔 부인되는 세 가지 성경적 사실들을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어느 부분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권위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양 착각하여, 어떤 부분은 원전 그대로이고 또 어떤 부분은 조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부분은 영감으로 쓰여졌고 어떤 부분은 영감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니며, 어떤 부분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또 다른 부분은 신화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의 많은 기사들 중에서 고등비평가들에 의해 가장 크게 비판되고 있는 기사들 중의 하나가 요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요나의 이야기에서 갖는 유일한 문제는 요나가 정말로 큰 물고기에 의해 삼켜졌느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진짜 문제는 그들이 갖는 하나님에 관한 개념의 문제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믿는다면 요나의 이야기에서 전혀 문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가 아니라 새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도록 하셨다 하여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람은 그 자신의 신을 만드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에 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그들 자신의 생각이나 개념과는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우주를 다스리며, 어떻게 인간을 만들며, 어떻게 도덕문제를 다루며, 어떻게 선택의 문제들을 다루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루었던 이 모든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계시를 무시하면서 자신의 판단을 더 선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 숭배입니다.

앞에서 다루었듯이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짐은 무엇입니까? 혹시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았습니다. 이교도들은 나무를 새기거나 금이나 다른 것들로 신의 형상들을 만듭니다. 그들은 그 형상들을 세우고 그 주변에 촛불을 켜놓고 향을 피우고 절하며 기도합니다. 그 우상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인 셈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들을 보고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걸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상숭배자들이 하나님을 자신과 같게 만들어 버렸음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눈이 있으니 눈을 달았으며 귀가 있으니 귀를 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만들려고 했으나 결국 그들보다 못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걸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 우상들을 만든 사람들이 그 우상들처럼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못난 신을 만든 자는 못난 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이 없어’라고 말한다면 그 자신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신을 섬기는 이유는 그 자신이 거짓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요일 3:2).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닮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고후 3:18).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섬기고 경배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요나의 기사에 대한 신빙성을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두번째로, 예수님이 확증하신 것은 죽은 지 삼일 후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고등비평가들에 의해서 거부되어온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실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세번째로, 예수님이 확증하신 것은 모든 사람의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예언된 것처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이 부활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계 20:11-13).

심판과 부활의 날에 관하여 예수님은 니스웨 사람들이 부활하여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니스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불만과 증오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개의 메시지를 니스웨 사람들에게 전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온갖 궁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시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그 일을 하도록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요나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밤낮 삼 일 동안 그 뜨겁고 습한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한 후에 그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해초에 얽히고 물결에 휩쓸리며 화씨 98.6도나 되는 포유동물의 뱃속에서 부대끼고서야 그는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변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니스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스웨에 가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한 가지의 단조로운 메시지만 선포했습니다. 즉 “40일 후에 멸망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스웨의 왕이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조복을 벗고 굶은 배를 입고서 재에 앉아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지 누가 알랴”하면서 니스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에 즉각 반응하여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을 피해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심판 때에 니스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변명이나 구실도 댈 수 없습니다. 분명한 말씀과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마디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한 니스웨 사람들에 비해 수많은 증거와 말씀에도 회개치 않고 믿지 못한다면 그 결국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당신의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12:43-45)

이제 예수님은 악한 영의 세력을 쫓아내시는 문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귀신을 쫓아내려고만 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사람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으로만은 온전치 못합니다. 그 영이 나간 자리에 무엇인가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 악한 영은 다시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속이 비고 청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보다 더 악한 영들을 데리고 들어가 그 사람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강한 능력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최선의 방법은 불을 켜는 것이지 캄캄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둠아, 나가라고 소리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불을 켜게 되면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그 속에 있던 온갖 더러운 악의 세력이 더 강한 빛의 세력에 의하여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나쁜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가져다 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빛 되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며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악한 영의 세력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나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12:46-50)

예수님은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라는 말을 듣고 “누가 내 모친이며…”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친에게로 달려가 ‘오, 나의 어머니 마리아여, 하나님의 모친이시며 여자 중에 당신이 복이 있으며 그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나”고 물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총을 구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우리들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해줄 수 있다는 암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의지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나…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볼 때, 마리아를 의지하려는 태도는 예수님이 결코 원하지 않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언급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특히 이 본문은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라는 가르침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 외에도 13:55 이후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본문과 관련하여 주목할 내용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즉 예수님을 통해 형제자매가 된 사람들은 혈육의 형제자매들과 갖는 관계보다 더 가깝고 밀접한 교제를 예수님 안에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가족이 되며 더 깊고 넓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가 다른 어떤 친밀한 관계보다 더욱 친밀하고 영원한 관계임을 가르쳐줍니다.